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4월 19일, 26일 699,000원
 서울시 중구 동대문로1번지 교보빌딩 10층(전3401)
 TEL: (02)725-7595 / FAX: (02)725-7923
 E-Mail: yahotour21@thermal.net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737-8881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4월 6일(음력2월 28일) 수요일 (주간) 제 520 호

“불교학생회 가입 할래?” “농담하니?”

불교동아리...40년 역사 10여명 ‘간신히’ 활동 | 기독교동아리... 교수님 지도에 지원금 ‘콕콕’

3월 29일 오후 6시, 숙명여대 불교학생회(회장 최정민, 이하 숙불회) 회원 8명이 법당으로 사용하는 학생회관 402호 동아리방으로 모이들었다. 최정민 회장(가쪽) 자원경영학 2은 월요일부터 이날 화요일까지 시작될 때까지 몇 명이 나 참석할지 걱정이 많았다. “이번에 나 참석하지 않아 더 가슴을 졸였는데 이렇게 많이 와서 한사를 뉘었어.” 전체 회원 20명 중에 실제 활동을 하는 회원은 10명 안팎이다.

게는 모두 부러움의 대상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숙불회는 긴 역사에 비해 활동은 많이 위축되어 있다. 외부지원은 동아리연합회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20만원과 대불련 중앙본부에서 나오는 지도봉사 정도. 가장 어려운 점이 학생들 사이에 숙불회의 인지도가 없다는 것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김경민 부회장(영문학부 2은) “올해는 신입회원 8명이 가입했다. 2003년에는 신입회원이 한명도 없

을 같이 쓰는 명지도 불교학생회에 비하면 방도 있고 신입회원이 없고, 갖춘 조건이 대학의 불교학생회 가운데 상위권에 든다. “불교에 관심 있어서 동아리방을 찾았은 학생에게 김박 한 줄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림 돈조차 없어서 안타깝다”는 최 회장은 “미래를 짚어줄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 좀더 중단이나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 아침기도도 하루를 준비한다. 하루 1시간 캠퍼스 전도, 매주 화요일 교육, 금요일 예배, 매달 1회 연합예배 등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김 대표는 “회원들은 순장(선배)과 순원(후배)으로 일대일 결연을 맺고, 순장은 순원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며 “순원이 하나님에게 달게 하도록 하기 위해 순장이 그 통로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선후배 간의 끈끈한

속대.C.C.C.의 활동은 조직적이고 여유롭다. 신입회원 홍보 시에도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입생을 위한 캠퍼스 전도, 일대일 설득방식을 즐긴다. 충분한 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손 안에 속 들어오는 전도 소책자도 준비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본부에서 지원된다. 최정민 서기(정 보과학부3)는 “올해 신입회원 수가 늘어 56명이 새로 가입했고, 세미나 실이나 강당에서 열리는 금요일예



3월 29일, 8명의 신입생을 받아들이는 숙명여대 불교학생회가 최정민 회장(오른쪽)의 집전으로 화요일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숙명여대에서 본 불교·기독교 학생들의 크고도 큰 '치'

새학기가 되면 전국 대학 동아리들은 신입회원 확보를 위한 각양각색의 홍보전을 벌인다. 불교 개신교 등 종교 동아리들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숙명여대 불교학생회와 C.C.C.의 하루 모습과 그들의 활동이야기를 들었다.



숙대 C.C.C.에서 사용하는 캠퍼스 전도자료는 C.C.C.본부에서 지급된다. 사진은 3월 30일 대표단회의에 앞서 기도하는 임원진들.

을 들어 세 번째 법회인데 이 정도는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할 뿐이다. <반야심경>을 공부하기로 한 숙불회원들은 회장의 집전으로 서문예불을 끝내자마자 두런두런 모여 앉아 지도법사인 홍지연 지도위원(대불련)과 대화를 나눈다. “친구들에게 불교학생회 가입하자고 문자 보냈더니 13명이 넘는 친구들 모두 농담인줄 알고 응답이 없었다”며 씩씩한 표정으로 유진하(양정보과학부 1)이 말문을 열었다. “기독교의 경우 C.C.C.나 I.V.F.(한국기독교학생회) 등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정서 동아리 외에 각 학부마다 기독교 동아리가 또 있는데 교수님들이 직접 지도해주세요. 여기저기서 지원도 잘된다고 하던데... 누가 우리 동아리에 오겠어요?” 홍보포스터에 교수님이 직접 모델이 돼 준 I.V.F.,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J.O.Y.(조이선교회) 등 숙불회원들에

있고, 지난해에는 4명이 가입했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성과”라고 즐거워한다.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한 기존 회원들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새벽부터 나와 포스터를 붙이고, 목이 터져라 거리홍보를 하는 등 고군분투했다. 숙불회는 매주 화요일법당은 꼭 불행한다. 끊기지 않은 유일한 전통이다. 지난해에는 법회이외에는 활동이 없었다. 올해는 사찰순례 MT 일일캠프 등도 계획하고 있는데 섬외와 비용마련이 만만치 않다. 회원들이 인터넷을 뒤져가며 발로 땀다. 선배들을 찾기도 한다. 참가비가 부담스러워 웹플스테이 같은 것은 꿈도 못꾼다. 매달 걷는 1만원의 회비로는 운영비 쓰기에다 버겁다. 그래도 숙불회는 사정이 낫다고 자위하는 편이다. 4년째 신입생이 없어 동아리방이 없어진 서울시립대 불교학생회나 다른 동아리와 방

3월 30일 저녁 7시 숙명여대 C.C.C. (한국대학생기독교회, Campus Crusade for Christ)를 이끌고 있는 김경대 대표(국문학과 3)를 비롯한 03학번으로 구성된 임원들이 들뜬 표정으로 하나 둘 동아리방에 도착했다. “이번 행사가 05학번 몇 명이나 신청했지?” “45명인가? 확인해 볼게.” “반별 현황도 좀 확인해봐.” 이번 주 금요일 순살대에서 열리는 1년에 한 번 뿐인 대학생 전도축제가 ‘여유사(여기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다. 총무 회장 서기 등이 머리를 맞대고 참가회원 명단을 점검하는 등 분주하다. 서울지구의 큰 행사를 앞둔 숙대 C.C.C.의 일주일은 예배 교육 전도 기도 등으로 빽빽하다. 매일 아침 8

정과 관리 시스템을 자랑한다. 회원들은 “교육과 예배는 간사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외부인사를 초청하거나 교회에서 예배보는 일은 없다”며 만족감을 드러낸다. 숙대 C.C.C.에는 본부로부터 송영 대표간사가 파견돼 동아리 활동을 보조 후원한다. 어려운 점은 모두 간사와 상의한다. 간사들의 활동비와 생활비는 본부에서 모금된 후원금으로 지급된다. 현재 숙대 C.C.C.는 11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비는 따로 없다. “운영비는 간사, 졸업생, 재학생 등의 비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귀띔한다.

에는 30~60명이 꾸준히 참석한다고 말한다. “학년 초 전체 OT와 숙명기독교 연합이 주최하는 크리스천 신입생을 위한 OT에서 일대일 전도 홍보를 많이 한다”는 조성우 총무(인문학과 3)는 숙명기독교연합이 학기별로 크리스천 대상 장학금을 주는 등 학생지원활동 등으로 학생들의 기를 북돋운다고 말한다. 장수진 전임회장(불문과 02학번)은 “철야기도회나 수련회 등은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 세미나룸 방송시설 숙박 및 여가 시설 등이 일괄 구비된 C.C.C.센터에서 모두 소화한다”며 행사 시 장소 섭외 등의 어려움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글·사진=강지연 기자

‘간화선’ 특집 부록 발행 타블로이드판 16면

알림

2005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역사+문화체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의 낙원이라 일컫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간: 7월 25일~8월 18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3월 21일~5월 10일
- 장소: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
- 협찬: (제)보림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 문화체험 - 폴리네시아인속춤 및 공연관람,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 한인이민의 땅서민 사랑수농장 하와이 플랜테이션 방문,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관람, 전 세계 유물을 한곳에 모아 놓은 비숍박물관 관람.
 · 해양스포츠 - 와이키키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에비 탐험, 크루즈여행, 잠수함 및 요트여행.
 * 지난해 참가자에게는 와이메아항공 원주민체험, 쿠알리아목장 승마체험, 워터파크별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 문의: 현대불교신문 02)722-4162-3, 010-95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간화선 대중화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법주: 지한 스님 / 4월 9일 오후 2시 범어사

‘할’

짜리고 부수고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것은?
 마음

산과 바다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것은?
 창동 자이

그림·조태호

인각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24·25면에

승공 확립과 투명 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 화 문

존경하는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어느덧 제31대 총무원 집행부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과없이 주어진 임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중정 예하를 비롯한 원로대덕스님의 지도와 중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루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중단은 ‘활개하는 중단, 신뢰받는 중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몇 가지 뜻 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중도들의 숙원인 역사문화기념관 불사가 오는 9월 1일이면 완공되어 개관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 착공되어 연수와 간화선 체험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소리원각 조계종마을 건립과 쓰니미 성금모금 등 자연재해로 실의에 빠진 인근국가들에 대한 구호활동으로 중단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으며, 지난 11월말에는 공강산 신계사 대웅전을 복원하여 정부 당국자와 현대사, 그리고 조물론 관계자가 참석하여 기념식 행사를 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이 중단의 각 영역에 대한 진단과 밑그림을 그렸던 설계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많은 정책 사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다음과 같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자 합니다.

먼저, 승공확립과 승가위계 확립을 위해서 제반 위험사항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사찰재정의 투명화나 사설사당 문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중원중봉상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년 동안 준비해온 승가교육제도의 개편안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확정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국제포교를 활성화하고 템플스테이를 한층 더 발전시킴으로써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한국불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시작된 승려노후복지기금의 확보, 심비노인복지시설의 건립과 더불어 승려노후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중단의 재정확대사업도 마련하여 그 구체적인 대안이 검토를 마치고 착수단계에 놓여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자유로운 불사가 제한되어 왔던 것은 사실의 오랜 민원이었습니다. 이 해부터는 승려를 반드시 불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제반 국가법령의 검토와 관계부처 및 국회청문회로 한 국가법령 개정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4년 이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중원중봉의 체계도 전반적인 손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원중봉재정팀을 구성하여 서로 상충되는 법령이나 현실과 괴리된 사문화된 법령 등에 대한 재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뚜렷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사복원사업의 지속적인 시행과 남북불교의 교류 확대 및 환경·인간·통일 영역에서도 중단이 선도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각 사찰의 여건에 맞는 사찰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인사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중단의 예산과 중무관리를 더욱 체계화하는 등 효율적인 중무행정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지난 3월 9일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 그리고 여야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투명사회를 위한 협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GDP 등 여러 다른 지표는 10위권에 머무는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하지만 부패지수에서는 세계 50위권에 머무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사회지도층에서 진작 했어야 할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불기 2549(2005)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